

투데이 칼럼

첫 만남에서 좋은 대화법

만 남이 잦은 시대에 첫 만남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면 그에 맞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그렇다면 첫 만남에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전략과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선수를 친다.

사람은 거의 없다. 둘째,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다. 사람의 마음에는 안전영역(safety zone)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패가러리를 이뤄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신 있게 말한다. <전쟁론>을 쓴 러시아의 명장 클라우제비츠는 항상 강한 곳에 힘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생각에 된다. 넷째, 감성을 이용한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의 감정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 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의미한다.

독자제언

안전수칙 준수 농기계사고 예방하자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농기계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재, 교통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 신호를 확인한 다음 도로로 진행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멕시코 대학생 43명 실종 5주년 "진상 규명하라"



멕시코 대학생 43명 실종 5주년인 지난 26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투 시위가 열려 유가족 및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외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제금융 혁신 성장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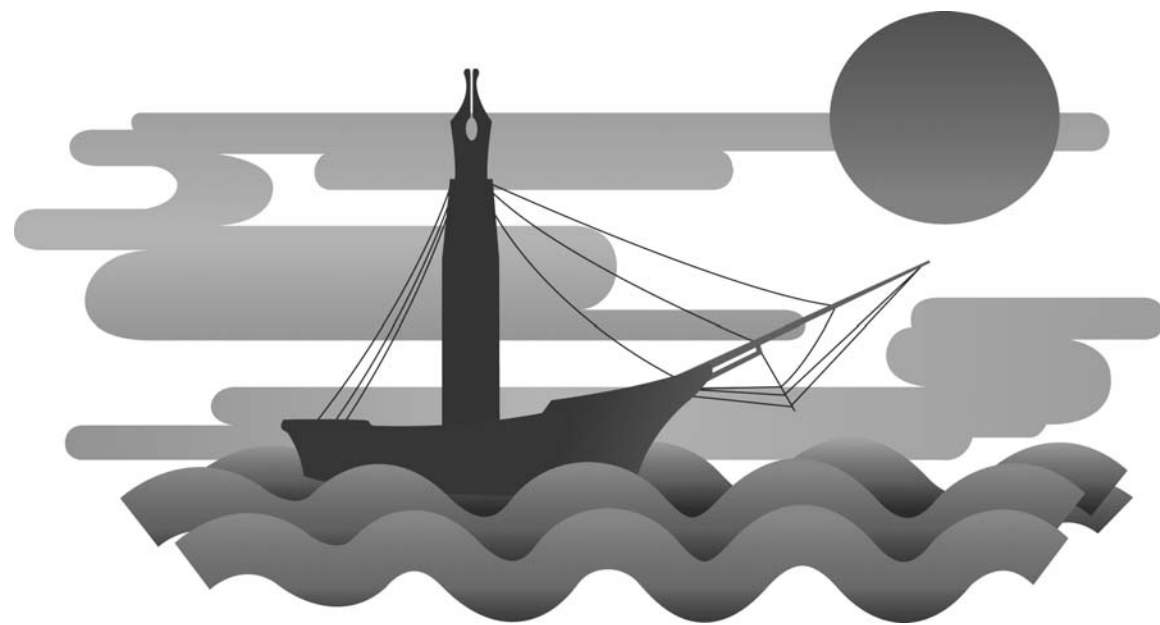
전북도와 국민연금 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9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 행사가 전주 그랜드힐스톤 호텔에서 있었다.

두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국가 총생산액에 있어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의 4대 경제 대국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발전 가속화 기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까닭이다.

기업들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도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전북도와 익산시에 당부 하고픈 말이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